

아버지의 자리

술에 취해

세상을 허우적허우적 건너면

저기

섬처럼 집이 있다 .

오늘도 이 풍진세상을

건널 수 있게 하는 건

저 반짝이는, 집의 광채들이다.

방문을 여니 아이들이 자고 있다

두 نوم 틈으로 비집고 눕는다

여기가 내 자리다.

아버지라는 자리는 깨끗해야 한다.

아버지라는 자리는 떳떳해야 한다.

- 박 사무관이 눈 좀 감아 주면 되는데, 안 되겠나 -

- 그럴 순 없습니다.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-

그길로 술집에서 뛰쳐나와 달려온 나의 자리.

어린 시절 아버진,

월급날이면 술 한잔 걸치시고

과자와 과일이 든 봉투를 내 손에 안겨주셨다

그리고 이내 어머니의 잔소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.

- 이거 갖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

딴 선생들은 다 촌지 받고 산다는데

처자식은 어찌 되든 혼자만 성인군자 되려고 그래요 -

사기꾼도 모리배도 부패한 관리들에게도 다 자식이 있다.

토끼같이 귀여운 자식들이 있다.

그 더럽고 부끄러운 손으로 벌어먹이는 자식들이.....

그러므로

아버지라는 자리는 더 깨끗해야 한다, 더 떳떳해야 한다.

한 녀석은 배꼽을 내놓고 씹씹거리고

다른 녀석은 엄마 배에 떡하니 다리를 올려놓았다 .

아이들의 다리를 쓰다듬다가,

무심코 창밖을 보니

오늘 밤에는 별이 더욱 찬란하다.

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시겠지

누구보다 더 빛나고 당당했을 아버지의 자리에.....